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25, 이스라엘의 미래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세션 25,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요시아와 그의 죽음이 이집트인들의 손에 의해 죽는 것에 대한 마지막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집트인들은 지배권을 잡고 유다를 통치할 사람이 누구인지 확립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인의 지배는 다소 짧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사명이 뿔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즉,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역대기가 예레미야의 비전과 매우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유다 왕국의 슬픈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제 이 사건이 있는 지 100년 후, 즉 예루살렘이 멸망된 사건이 있는 지 200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은 작은 공동체이고 성전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정치적인 국가나 국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그렇다면 문제는 연대기가 묘사하려고 하지 않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아마도 적절한 종말론자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신의 창조물을 회복하고
파멸시키실 것이라는 점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기 작성자는 우리가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종말론의 구체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추측을 동일한 일반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역대기 기자가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시아 이후에도 유다 왕국은 복종하는 속국으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이 왕들 중 누구도 독립된 왕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와 바빌론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저항하거나 다른 동맹에 가입할 때마다 그 결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형벌은 나라의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에 우리의 첫 번째 왕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인데, 그는 그 땅
백성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집트인들에게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이 임명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그를 폐위시키고 조공을
징수한 다음 그의 동생 엘리아김을 세워 봉신 통치자로 삼고 그의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그는 약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을 왕좌에 앉혔는데, 그의 성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끔찍하게 포위되고 시드기야
가문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추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종말을 겪는 것은
시드기야 치하에서 이 모든 일이 시드기야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모든 공포입니다. 그러나 연대기 기자는 그 나라가 신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의미입니다.

실패와 죄는 일종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패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신뢰의 실패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그러한 신뢰를 결코 나타내지 않았으며 우리는 특히 예레미야에게서 이것을 봅니다.

우리는 특히 예레미야가 대우받은 방식과 그의 삶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고 결국 애굽으로 유배되는 방식에서 이를 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희망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서는 70년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실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연대기는 이 모든 것에 관한 신학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안식일 신학입니다. 모세의 토라에 나오는 레위기에서는 땅이 매 7년마다 안식을 취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약 49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모세의 지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70년은 일종의 신학적 진술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한 49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을 소홀히 하여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연대기 작가의 명시적인 진술이지만 그가 그것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레위기 자체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 가지로 셀 수 있는 것은 유배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귀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배자들의 초기부터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다니엘인데, 그것은 요시야가 죽은 대략 609년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연대기가 539년에 그의 책 끝부분에서 언급한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납니다. 또는 우리는 성전이 파괴된 때부터 586년까지 70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16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찾을 수 있는 기초입니다.

요점은 70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지키지 못한 결과를 말하는 대표적인 숫자라는 점이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새 언약과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의 회복이 연대기 기자가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과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함으로써 연대기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결론짓고 싶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그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의 전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모두 복음으로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셨나요?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간단히 말해서,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치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처럼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사실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에는 우리가 참조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다른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참조하는 다양한 특정 엔터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에 이스라엘은 단지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연대기 기자가 그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바로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야곱이 아니라 이삭과 에서와 이스라엘이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언급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남쪽의 유다 왕국과 반대되는 북쪽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읽는다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던 모든 지역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실제로 자세히 읽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참고자료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연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그러한 용어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약속의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그는 그것을 민족성 측면에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가져오실 사람들의 관점에서 정의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가 역대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이스라엘 개념을 완전히 따르고 있다는 점이 나에게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의 성격은 바울이 신명기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믿음을 갖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지 봅니다.

그러나 신명기 30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이 그분의 진리를 갖게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주장을 따라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알고 있던 대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1장에서 그는 이방인들이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접붙임이 된 것입니다. 만일 접붙임이 가능하다면 분명히 원래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그 약속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온 이스라엘, 즉 그는 믿음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정치적 실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유전적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코 특정한 유전적 후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연대기는 이스라엘을 정치적 국가로 정의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국가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든 그는 여전히 온 이스라엘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주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이 나에게 역대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마지막 지점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분 왕국의 시민으로서 그분의 목적과 뜻에 따라 사는 법을 아는 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대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연대기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집단적으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개념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역대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개념에 확실히 반대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칭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삶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기 위해 예배에 함께 모입니다.

네, 거기에는 음악과 노래도 포함됩니다. 사실 저는 설교자이고 좋은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역대기 기자는 거창한 설교나 좋은 설교에 그렇게 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들은 선지자에게서 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간에 옵니다. 설교가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표현되는 방식을 인식하지 마십시오. 음악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이러한 모든 의식과 활동을 통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분의 왕국에 대한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우리의 것이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곧 다가올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연대기에는 희망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자들이라면.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연대기 작성자가 이야기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여기있다.

그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시작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의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징을 취하심으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유월절. 빵과 포도주.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를 성전으로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몸. 새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이스라엘 모두를 위해. 이것이 연대기자의 견해이다.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세션 25,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